

내년 군산시정 운영방향은?

강임준 시장, 시정연설 통해 5대 방침 제시

강임준 군산시장이 25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군산시의회 정례회에서 2023년 예산편성 및 시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강 시장은 민선 8기 첫해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했으며 민선 8기 동안 시민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민선 8기, 지난 5개월간의 주요 성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제1호 대기업 투자 SK 창업클러스터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 절차 진행,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산업 집적화 등을 꼽았다.

또한, 고군산군도의 체류형 관광지 탈바꿈을 위한 1단계 사업인 '신시·야미 레저용지 신시호텔 착공을 언급하며, 국제물류도시 도약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신항만·인입철도 등의



SOC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10여년 간 표류해온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도 지난 8월 기재부 총사업비 증액심의가 반영된 기본설계가 완료돼 내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도 대규모 국가행사인 '제3회 섬

의날 행사',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성공적으로 치르며 시민의 자긍심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자연감소 및 수도권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 대응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육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중점으로 민선 8기에 돌입하며 5대 시정방침을 재정립했다"면서 "내년 시정운영 방향도 새로운 5대 시정방침과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이 언급한 5대 시정방침으로 '다함께 배우는 교육도시', '지속 성장하는 경제도시', '군산다운 문화 관광도시', '시민행복 안전 복지도시', '소통공감 행정 혁신도시' 등이 있다.

군산시는 이러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올해 대비 12.3%가 증가한 1조 6,347억 규모 본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878억, 특별회계는 1,469억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새만금 부지 복합 문화축제 개최 제안

김경구 군산시의원, 시정질문서 농생명단지 활용 방안 촉구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지난 25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의 시정 질문을 통해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제척과 새만금 농생명단지 활용 대응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재단을 구성했던 인수위원회 사무국장의 자리에 근무하는 것으로 지난 3년간의 사업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해 재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권활성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며 자치 선거용 지원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 지원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정 없이 2차 지원을 했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236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사무국장의 거취를 말했고 스스로 사임할 것을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



무국정의 사임은 커녕 재임까지 이어졌으며, 지금이라도 사임을 권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군산시는 현재 근대문화역사 거리를 조성하고 군산시간 여행 축제, 군산 문화제 야행 축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문화 관광 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산에는 새만금이라는 광활한 부지가 있는데 군산시가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은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문화관광과 관련된 사업은 유일하게 새만금 생태환경 단지에 습지와 생태체험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을 뿐 농생명단지에는 사료작물 재배와 사료장 설치, 묘목 시험장 정도가 고작이다"며 "이 지역을 활용한 새로운 꽃 문화축제를 제안했다."

이어 김제시의 경우 광활한 시험재 배지에 농업진흥청이 화훼연구단지를 조성해 전복대, 원광대, 농업연구원과 연계해 새만금에 꽃 문화 관광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순천시 세계 규모 순천만 국가정원, 태안군 인연도 세계 꽃박람회, 정읍시 구절초 축제, 고창군 꽃무릇 축제, 남해군 유채꽃과 튜립 축제 등 작지만 알찬 지역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익산시 천만 송이 국화꽃 축제는 소모 예산이 인건비 포함 13억 원 중 축제 직접비만 8억 원이며 이 중 3억 원은 농가에서 재배하여 가문 국화 화분을 매입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2억 원은 국화재배 및 축제기립 5명, 조형물 제작 무기 계약 2명, 국화재배 필요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40명의 인건비로 쓰이는 등 재배 농가 및 익산시가 서로 상생하면서 예산 절감은 물론 고용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등 익산시민의 경쟁력 있고 특색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다 지방자치는 농가소득과 내수 소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에 경쟁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 군산에도 농업기술센터 인원 증원과 과실실을 통해 광활한 새만금에 농생명 용지에 단순히 사료작물만 재배할 것이 아니라 50ha 약 15만 평 부지에 새로운 꽃 명소 사업을 계획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간척지는 연구 결과 구근류 꽃 재배가 적합하며 새만금 부지를 활용하여 3~4월은 수선화, 4~5월은 튜립, 7~8월은 나리꽃을 육성하여 꽃 축제와 문화행사 등 복합적인 문화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

“관내 업체 계약… 지역경제 활성화”

김영자 군산시의원, 5분 발언서 적극 확대 촉구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이 제 2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수의계약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내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산시의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에 따른 계약을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의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총계약 건수는 3,156건이고 수의계약 건수는 2,094건, 비율은 66%로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총 1,912억 원 중 수의계약총액은 354억 원으로 19%에 불과하며 올해 또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의계약 건수 중 실질적으로 군산 지역업체들로 들어오는 수입은 전체 계약액의 18%인 약 200억 정도 밖에 안 될 뿐 아니라 나머지는 전부 관외 업체들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 예산은 복지 기능과 역량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다"며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의 한도를 2배 높이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함으로써 군산시도 2023년부터 법적 기준 안에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0년에서 22년 10월까지 관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총 4,600여 건 중에 일부 특정업체는 20개 이상 계약한 업체도 다수 있지만 계속해서 한 번도 수주를 받지 못한 업체들이 있어 일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군산시를 동물복지 도시로”

한경봉 군산시의원, 5분 발언서 체계적인 동물보호·관리 촉구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제 2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개 농장의 위법 상황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동물복지 도시 군산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에는 전국적으로 쾌적한 환경으로 유명한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고,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를 통해 동물복지 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보호법에서는 개를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5항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이와 같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 하도록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허가 없이 불법 개 사육장을 만들고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일명 개 농장의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개는 축산법 제2조 제1호와 축산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가축에 해당하지만,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에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 사육을 위한 개 농장의 운영은 본인 소유자나 임대자에서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개를 사육하는 데는 불법 행위를 하거나, 도살 및 처리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 도시 군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실태 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여성가족정책 발전방안 수립 최종보고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여성가족정책 연구회(대표의원 한동연)는 지난 25일 익산시 여성가족정책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한동연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미선 의원, 김순덕 의원, 송영자 의원, 이종선 의원, 정영미 의원, 조은희 의원 등 7명의 의원들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익산시 여성가족정책의 현안사항과 주민의견 등을 반영한 익산형 여성가족정책 발전방안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최종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최종보고안 주요과제 중 눈에 띄는 정책으로는 △저출산과 돌봄의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남성의 자발적 자녀양육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삶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정책'이 제시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김장체험한마당 동농 상생협력 축제로

익산시는 도시 소비자와 지역 농가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로 상생·협력하는 '2022년 김장체험한마당'을 28일 서동농촌테마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은·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김장체험한마당은 현장 체험 100가구 400여명, 드라이브 스루 40여 가구, 택배 60여 가구를 비롯해 총 800여명이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안전을 위해 현장 체험은 가족 단위 비대면 부스에서 총 3회로 나누어 진행했다.

이번 김장체험에는 배추 4,880kg, 무 130kg, 고춧가루 390kg 등 익산 농산물이 소비됐다. 14농가가 농산물 출하에 참여하고, 김장 준비, 행사 진행에 40여명 등이 참여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익산=이재춘 기자